

#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꿈의직장

#워라밸

2019 10 Vol. 534

주4일 근무제로 업무 효율화와 직장 워라밸 만들어가는 에듀윌(주)

# Contents



## 06 따뜻한 말 한마디

재취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10 맞춤 솔루션

다시금 푸릇푸릇 중장년의 새 꿈을 응원하다

## 14 人 스토리

중장년, 나의 행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석상준 님



## 노동 현장과 정책 이야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18 중장년 희망일터

실직 딛고 나무농사꾼과 명품강사된 이광형 님

## 22 청년 불패

직무체험으로 인생회사 만난 김혜린 님  
글로벌 인재의 꿈 실현한 송민영 님

## 26 기술의 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실한 기업 키우는  
(주)동원파츠 조덕형 대표

## 30 정책 돋보기

일자리사업 예산안으로 희망을 심습니다

## 34 정책 수첩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용시장 '활짝 캠'

## 38 잡툰

우리 회사 막내는 도서관장님

## 40 고용노동 뉴스



상생협력, 가치창출,  
미래성장 이야기

##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46 같이의 가치

함께 채우며 더 큰 하나를 만드는 더사랑

## 50 해피 트게더

평가체계 만들며 새로운 소통이 시작된 건영테크(주)

## 54 하우투 워라밸

직원이 즐거운 회사를 꿈꾸는 (주)에듀윌

## 58 노사형통

상호 존중으로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 62 일자리 가이드

취업·일자리 박람회

## 64 내일 직업 사전

주택관리 분야 新직업

## 68 SOS 고민 상담소

연차휴가대체제도와 법정공휴일 관련 개정 안내 외



여가생활 이야기

##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 70 옛 직업을 찾아서

달콤한 추억의 직업, 짤각짤각 엿장수

## 72 직장인 에너지 충전소

무르익은 가을을 만끽하는 6가지 방법

## 74 동의業보감

직업성 심장질환

## 76 스마트 재테크

'텅장' 탈출을 위한 통장 관리 노하우

## 78 내일스타그램

내가 사랑하는 책

## 82 독자 마당

고용노동부 소식지 2019 10월호 <내일>

동권 강남 라00389(동권 534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이재갑 편집위원장 김덕호(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 독자 맞춤 칼럼 이럴 땐,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일

중장년으로 퇴직 후  
새 꿈에 도전하는  
재취업 희망자라면?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으면 누구나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 자책이나 낙망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가의 조언인 ‘따뜻한 말 한마디’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든든한 조력자에게  
막막한 재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려운 문제는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이번호 ‘인스토리’는 중장년 재취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그 자신도 중장년 퇴직자로서 성공적인 재취업을 경험한 주인공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화 이룬  
기업이 궁금하다면?

‘하우투 워라밸’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업무 효율화로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이 곧 생산성이라는 기준의 생각을 깨는 혁신적 워라밸을 소개합니다.



2019년  
10월 이야기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 한 번 보세요

10월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볼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 한 번 볼 여유도 없이 깊고 푸르러진 가을하늘도, 붉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느껴보지 못하고 새로운 계절을 보내고 또 무심코 맞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바쁘기도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몇 시간이 소요되거나  
곱게 물든 단풍잎 하나 집어 책갈피에 끼우는 일이  
비르고 별리야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이번 호 월간 <내일>의 주인공은 인생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입니다. 자칫 조급하거나 막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을이 주는 여유로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 재취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일꿈연구소 **간호재** 소장의 조언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구직활동을 합니다. 취업 포털에서 채용정보를 찾거나 아는 사람에게 취업을 부탁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이유를 찾게 되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볼까요?

글 간호재(돈일꿈연구소 소장)



일자리는 있습니다

중장년 구직자들은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구직활동의 걸림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682,655명

563,05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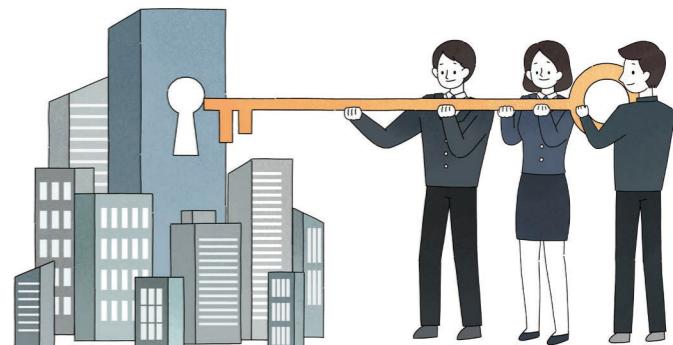
549,4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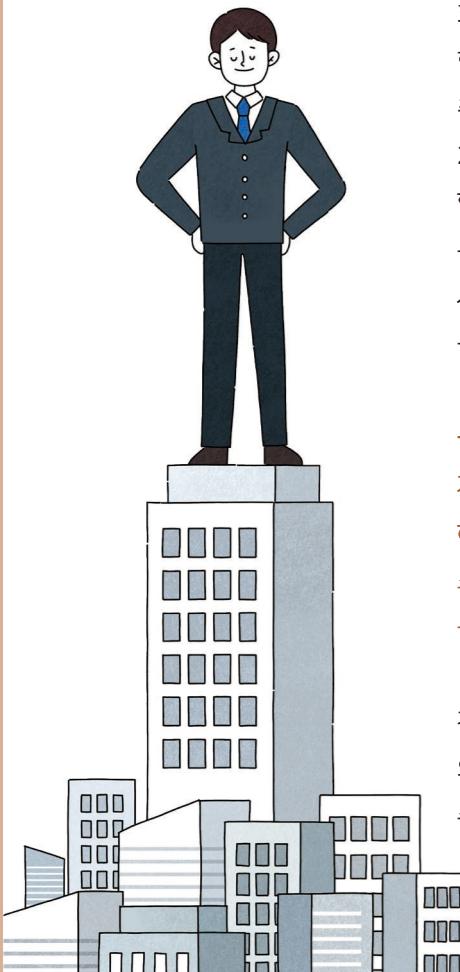
796,505명

<연령별 고용보험 취득현황> (출처: 2017년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는 말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누군가 취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0세에서 54세 사이의 구직자가 2017년 1년 동안 전국에서 563,058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563,058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선뜻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65일로 나누면 약 1,543명이 됩니다. 즉, 단 하루에 50~54세 구직자 1,543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구직자인 내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는 ‘단 하나’입니다. 이 1,543개 중에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요? 분명히 일자는 있습니다.





문제는 구직방법입니다. 중장년 구직자는 적합한 구직 방법을 배워 구직활동을 해야만 재취업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 첫째, 취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자.

구직활동의 첫걸음은 취업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취업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채용정보를 찾는데 집중하지요. 하지만 취업목표 설정이 첫 단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 10년 또는 길어야 15년 경력을 보면서 가장 자신 있는 강점을 3~5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후 자신의 경력 강점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 회사를 생각합니다. 이 회사들이 바로 취업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회사들이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회사가 취업포털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채용인원의 약 20~30% 정도만 취업포털을 통해서 채용합니다. 나머지 70~80%는 인맥 활용,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습니다. 이 70~80% 일자리는 일반 구직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취업목표로 세운 회사들이 구직자 눈에는 사람을 뽑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실제로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현상이 두 번째 취업 성공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 둘째, 회사를 직접 두드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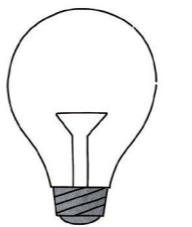
자신의 경력 강점을 잘 표현한 이력서, 그리고 입사 의지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내용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채용담당자 또는 채용 의사결정권자에게 먼저 보내는 방식으로 회사를 직접 두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성공 확률이 높은 구직방법입니다. 약 30개 회사에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어떨까요? 아는 회사 또는 소개로 연결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구직활동은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열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왕 뽑을 사람이라면 자기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사람을 뽑습니다.

#### 셋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자.

구직활동의 목표는 한 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분명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종 채용 결정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 구직자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약 3개월 함께 일해 보고 결정하자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간호재 소장은** 돈일꿈연구소  
장이자 전직 지원 전문가로 중장년 재취업, 인생2막 설계, 4050 재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프로그램 개발('13년, 한국고용정보원, 공동개발), 장년 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 개발('15년, 노사발전재단, 공동개발) 등에 참여하고, 4050 재취업 성공의 비밀 ('18년5월, 도서출판 유심) 등을 출판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아닌데 3개월을 일해 보고 최종 채용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3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때는 기업이 지원자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쉬운 쪽이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만한 경력직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라는 고민에 지금 지원자를 붙잡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원자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넷째, 재취업 전문기관도 활용하자.

구직활동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전국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www.work.go.kr/4060hope](http://www.work.go.kr/4060hope))’가 32곳이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맞춤 재취업 컨설팅, 취업알선, 재취업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성공,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구직방법을 배우고 노력하면 재취업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대한민국 중장년 구직자 분들의 재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 다시금 푸릇푸릇 중장년의 새 꿈을 응원하다

중장년 희망 재충전을 위한  
재취업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요즘, 중장년은 다시 찾아온 전성기일지 모릅니다. 인생 전반기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꿈으로 향하는 길을 넓혀 다시금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에 ‘딱 좋은 나이’, 중장년의 새 꿈을 응원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 서비스 프로그램과 제도를 살펴봅니다.

정리 편집부



## 갑작스런 퇴직으로 막연다면 전문기관·상담사 찾기



**Q\_** 준비 없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 재취업 준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퇴직을 했거나 퇴직 예정인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전직 상담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 진단과 이력서 수정, 면접 대비 코칭,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직 중, 퇴직 전, 퇴직 후 등 근로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미 퇴직 후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전국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장년층에 특화된 종합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Q\_** 직접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데 중장년 취업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전국 44개소의 ‘고령자인재은행’ 1350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만 50세 이상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 서비스, 구인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지난 9월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의 누리집(5060job.career.co.kr)에서도 채용 기업별 모집 직종, 자격 요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1544-1199)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50플러스센터(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등),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대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지자체 장년 관련 센터, 장년워크넷, 100세누리 등에서 일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구직자  
(재직자)  
장년에 진입하는 일정시점에서 본인의 생애경력을 점검하고, 인생후반부에 대한 계획수립과 경력관리, 능력개발 활동 지원

### 전직스쿨프로그램

퇴직  
예정자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향후 진로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지원

### 재도약프로그램

구직자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구직기술 습득 및 취업활동 지원



## 퇴직 후의 삶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관심 분야 찾고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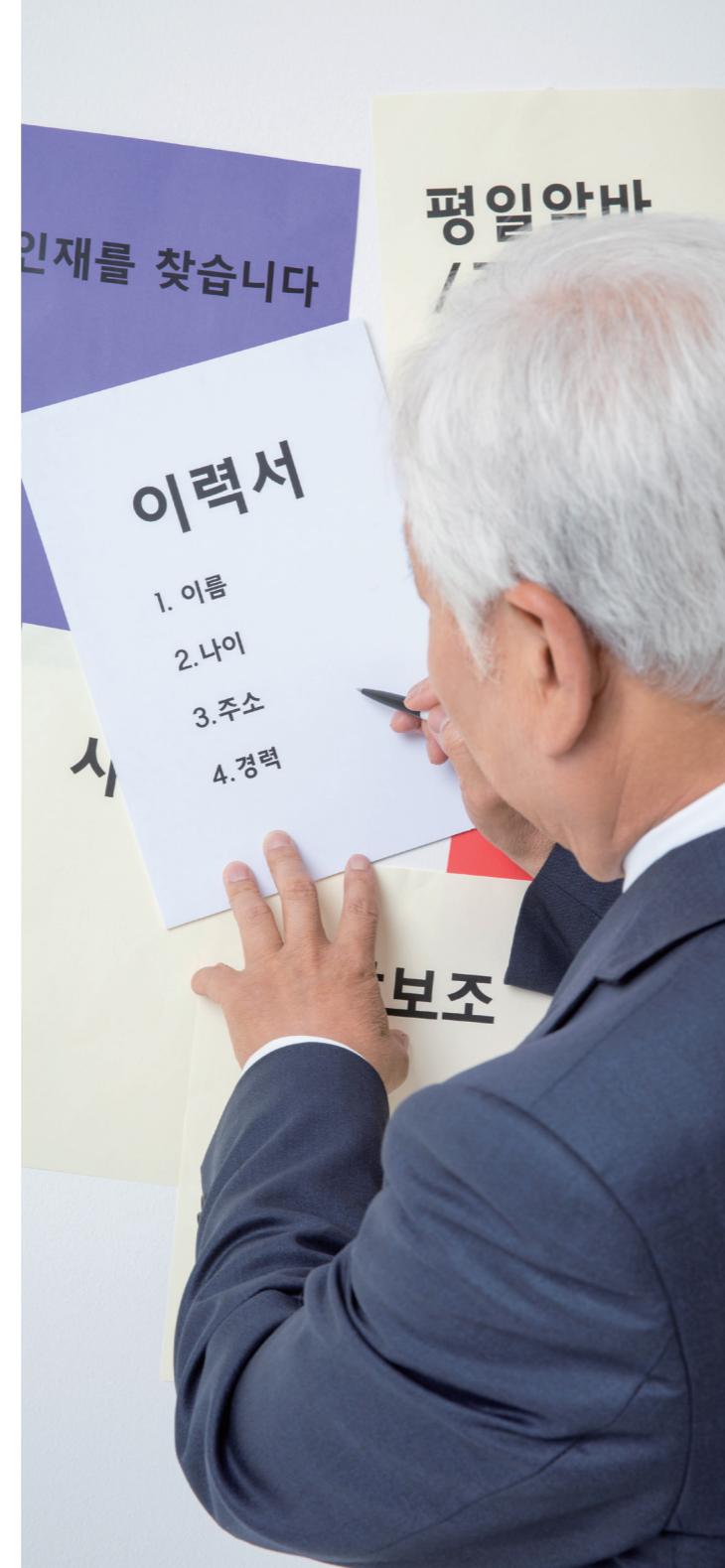
Q\_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 전이라면?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한 내일배움카드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이후라면?

내일배움 구직자카드 외에도 기계금속, 자동차, 전자, IT 등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에 중장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도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신중년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 과정이 있으며 신중년특화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 베이비부머과정은 만 45~62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 자신만의 사업 분야를 창업하고 싶다면 시니어 창업지원 제도 활용하기



Q\_ 제 경력과 기술을 활용해보고 싶은데 창업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 기술창업 분야의 창업자(3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 퇴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며 세무·회계·법률·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지원과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전국 주요 지역에 27개 센터가 있습니다.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기술력과 경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경력 10년 이상 숙련 퇴직자와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매칭해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 외에도 창업공간, 멘토링, 판로·마케팅, 협업,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 전 주기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 장년인재 서포터

청년 창업기업과 중장년 구직 인재를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생존경쟁을 벌이는 청년기업에 중장년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해 초기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기업과 장년인재가 상호 매칭이 되면, 매칭팀에게 최대 5개월

간 1천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전문가 멘토링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 3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가와 10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만 40세 이상의 장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신중년 인생 3모작 설계지원 안내서」, 2018 ]



# 중장년, 나의 행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천센터 컨설턴트 석상준 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컨설턴트로 5년여 간 근무하며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해온 석상준 님은 그 자신도 중장년 재취업으로 다시 일어선 경험자로서 이 시기의 고민과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중장년 재취업의 든든한 길잡이를 자처하며 자칫 좌절감으로 낙망할 수 있는 이들을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석상준 님을 만나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자신과 동시대의 베이비부머 돋는 제2의 삶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과 창업, 생애설계 지원, 취업 알선, 사회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석상준 님은 주로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구직자를

매칭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중장년 퇴직자들의 새로운 인생설계와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자신의 일에 상당한 매력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컨설턴트로 일하기 전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일에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기는 생업으로서 취업해야 했기에 금융인으로 20년, 기업 관리임원으로 6년을 일했죠. 그리고 2013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강의와 컨설팅으로 저와 동시대의 베이비부머들을 만나 고민을 공유하며, 구직자들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 일을 시작했죠.”



## 중장년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

컨설턴트 활동을 하며 중장년의 재취업을 돋는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경험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아 면접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설정해 놓고 감지하지 못하거나 집에서 무음으로 방치해 두었다가 못 받는 경우, 낯선 번호라 받지 않는 경우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중장년은 ‘겸손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력서며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시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상준 님은 중장년의 면접 시 동행해 면접 30분 전 구직자들을 집결시켜놓고 강한 성취동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긴장해 자칫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다시 한 번 리마인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면접에 대비해 밝은 표정과 정확한 표현 등을 당부하는 한편, 중장년 이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애경력설계 등에 대해 짧게 20여 분 워밍업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한 결과 구직자들의 자신감과 열정이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좋은 면접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 동행면접으로 면접 성공한 김판식 님 사례

석상준 님과의 동행면접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현재 CGV계양의 액티브시니어 미소지기로 일하며 ‘점장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김판식 님도 동행면접을 통한 성공적 취업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면접 시 밝은 미소로 자신의 장점을



CGV계양=액티브시니어와  
중년 미소지기들 사이에서  
‘스웨트 가이’로  
불릴 정도로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고 계세요.  
- CGV계양 점장 정지인 님



간결하고 정확하게 부각시키라는 점, 면접관의 질문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짚어준 점 등이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면접에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명쾌히 할 수 있었죠.”

김판식 님은 30여 년을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형자들의 재사회화 교육을 담당했던 터라 조직사회의 경직성이 자칫 몸에 배진 않았을까하는 우려와 달리 20, 30대 구성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어색함 없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GV계양 점장 정지인 님이 “CJ CGV

계양 액티브시니어와 청년 미소지기들 사이에서 ‘스웨트 가이’로 불릴 정도로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고 계시다”라고 전할 만큼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CJ CGV의 액티브시니어 면접을 담당했던 CJ CGV 인천 경기RS SM 박종우 과장은 CGV(영화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고객서비스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면에서 김판식 님의 열정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과 함께 그동안 취업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을 겪은 석상준 님은 중장년 취업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 제1막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선택했다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은 자신이 즐기며 건강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장년들은 그동안 수많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근면 성실하게 도전하여 극복해 왔고 그를 통해 큰 저력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벼랑 끝에서 다시 희망을

## 바 라 보 다

프리랜서 강사로, 나무 농사로 전국을 오가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광형 님은 38년의 공직생활 중 갑작 스런 퇴직으로 재취업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퇴직을 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 명예퇴직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커다란 금전적 손실도 겪어야 했지만 절망의 끝에서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강사의 꽃 '청렴교육전문강사' 된  
이광형 님

자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강단 있는 목소리와 다부진 말솜씨가 강당을 가득 메운 119대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 날은 전남 나주소방서에서 청렴강의가 있는 날, 청렴연수원등록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형 님은 때론 힘 있게, 때론 재치 있는 유머와 퀴즈를 섞어가며 능수능란하게 강의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한 청렴강사 선발 및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교육, 평가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청렴연수원등록 청렴교육전문강사로 선발되었습니다. 현재 5개 공공기관의 인증강사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전문강사로 선발됐다는 것은 강사들의 세계에서 강사고시를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광형 님은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민간전문강사,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원의 시민나눔강사로 선발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광형 님의 강의에서는 오래된 베테랑 강사의 포스가 느껴지지만 이광형 님의 본격적인 강사 경력은 이제 2년여입니다. 이광형 님이 강사로서 능숙함을 가진 것은 그의 전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하 지방공무원으로 38년의 공직생활을 했고 국장급 공직자로 퇴직하기까지 강진부군수, 나주부시장 및 시장권한대행 등을 역임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 자연스럽게 강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공직 생활 중 앞에 나서 이야기를 전할 때도 대본은 따로 없었어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의 제2의 직업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제 강의에 만족해하시고요.”





## 간과하기 쉬운 사례

사적 이해 관계의 신고: 4촌 등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한  
인과의 갑질, 비번자동원등)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상급기관, 의회등

직무관련자거래신고: 금전대  
부당한 이익을 위한 상사의  
수의 부당한 요구금지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인과의 갑질, 비번자동원등)



## 아내와 함께 나무농사로 만들어가는 소소한 워라밸

새로운 일을 갖기 위해 알아보던 중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마음의 복잡한 상념을 지우기 위해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으로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산림조합을 통하여 3년 거치 7년 상환의 정책자금을 받아 1억 원의 융자를 얻어 나무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때는 1만평 정도까지 규모를 키웠는데 요즘은 제 나이도 있고 조경수 시장 상황도 썩 좋지 않아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으로 줄여 6천평 정도를 가꾸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이나 공원 등지에 식재하는 큰 나무 위주의 조경수재배예요.” 나무농사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1년 동안 계절별로 120여 일간 일용직으로 나무농장에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었지만 핫팩을 비벼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망 끝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의지가 생겼던 걸까요? “아마도 가족 때문이었겠지요.”라고 말하는 이광형 님은 먹먹한 가슴에 잠시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내와 나무를 가꾸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는 시간, 그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잠이 든 아내의 모습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광형 님은 한결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입니다. 일과 삶의 비율을 4대6 정도로 유지하며 강의가 없는 날이면 여행과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삶 속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제2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가장 힘든 일은 공무원 티를 벗는 일이었죠.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 갑작스런 퇴직과 낙마의 트라우마

공직정년 5년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퇴직하며 맞이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오며 머리가 훤크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에서 시장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에 쫓겨 급하게 퇴직하게 된 그땐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기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가 낙선했어요. 그 후로는 공천이 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해야 했고요. 제 주변에 선거에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 역시 같은 기분이었죠. 공직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 한 것에 대한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다 지난 일이지만 당시는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릴만큼 트라우마였습니다.”

계속 도전하여 정치의 꿈을 이루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정치낭인이 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선배들을 보며 과감히 마음을 정리하고 굳은 각오를 하였습니다. 공직생활 중에도 직장 산악회장을 맡을 정도로 등산을 좋아했기에 시간이 나면 등산도 다니고 새로운 여가생활을 하며 참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광형 님이 말하는 재취업 성공 비결 3가지

- ① 이전의 나는 잊어라, 새로운 삶의 시작!
- ② 돈보다는 보람을 생각하라, 이제는 워라밸 시대!
- ③ 지역사회에 데뷔하라, 네트워킹 활용!



# 직무체험으로 만난 인생회사 취업으로 이어진다



## 조금 늦어진 취업준비에 더 적극적 자세

비영리단체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혜린 씨는 현재의 일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아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혜린 씨는 회사의 비전에 마음이 끌려 입사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최적의 근무 환경과 탄탄한 규모, 체계적인 시스템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씨는 대학에서 방송영상스피치를 전공한 후 편입해 연기를 전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음을 느끼며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전선에 뛰어들려고 보니까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김혜린 씨가 편입하기 전 일한 경험이 있어 인연을 맺었던 터라 보다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했던 취업준비였는데 가뭄에 단비처럼 조금씩 대학일자리센터와 함께 그 목마름을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했던 ‘대학일자리센터 잡서포터즈’는 선발부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면서 일반학부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준비한 게 없어서 자괴감이 들며 불안했지만 열정 하나로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잡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늦어진 취업 준비였지만 늦은 만큼 대학일자리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했습니다.

## 직무체험을 통한 취업 성공

전공수업을 병행하며 대학일자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쉽지는 않았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굳혔습니다.

“부족한 스펙을 한 줄이라도 더 채우고 싶어 ‘컴퓨터활용능력2급 취득반’에 들어가 손도 못 댔던 엑셀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된 저를 보면 어렵게만 생각했던 취업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외국계 기업 취업대비반’에서 회사를 탐색하고, 기업이 원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입사지원까지 연결하는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하는 회사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방학 중 한 달간 지금의 회사에 ‘대학생 직무체험’을 참여하였는데 회사의 이념과 비전이 김혜린 씨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첫 회사로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체능학과 특성상 취업정보가 많지 않고 이력서 작성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대학일자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무체험으로 한 학기 반 만에 이뤄냈어요. 기적이죠. 야근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TIP

### “김혜린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대학일자리센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제게 부족한 취업 능력을 키우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한 컨설턴트 선생님과 여러 회사를 탐색하고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받아 내가 원하는 회사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직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체험이 되었어요.



-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 전공
- 백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 NGO 단체 취업 성공

# 해외문화 호감도 키우며 글로벌 인재의 꿈 실현시키다



## 가족 소통 위해 시작한 영어공부

국내 최대 여행기업의 LA지사 인바운드 팀 내 인턴으로 근무 중인 송민영 씨는 미국 LA에서 업무를 익히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이곳이야말로 기회의 땅, 미국의 축소판이라고도 생각하는 송민영 씨는 그 안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송민영 씨가 해외 취업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바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스웨덴으로 입양되었던 외삼촌은 어머니와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송민영 씨가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회화로 두 사람의 소통을 돋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통역을 담당하기 위해 영어공부에 집중했으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스웨덴 문화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층 간, 지역 간, 성별 간의 격차가 적은 스웨덴의 높은 삶의 질과 시민의식이 송민영 씨에게 해외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결국 통역을 위해 시작한 영어공부가 취미가 되고 또 그 취미는 취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해외 취업에 대한 꿈과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었으니 말입니다.



## 실무적 조언 얻을 수 있었던 채용박람회

인터넷을 통해 얻은 해외 취업 정보는 사실 확인이 어렵고 보기 좋게 모든 것이 정리된 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워 큰 고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읽다보면 어딘가를 홍보하는 광고 글이 많아 실망하기도 수차례, 수많은 정보와 광고에 지쳐갈 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포털사이트 ‘월드잡플러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이력서 작성법부터 해외 일자리정보, 해외취업 성공 수기 등 해외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어 정보에 한정적이었던 송민영 씨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드잡플러스에서는 국가별 혹은 업종별로 채용박람회, 취업박람회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자신만의 취업전략을 짠다면 해외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송민영 씨는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개최된 관광채용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채용정보를 알게 되었고 행사의 부스에서 실무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조언까지 들을 수 있어 입사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취업에서 모두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어장벽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배우고 심지어 제2 외국어도 배운 우리입니다. 과감히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TIP

### “송민영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월드잡플러스’에서 영어이력서 쓰는 법, 해외 일자리정보, 해외취업 성공 수기 등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혹은 업종별로 채용박람회, 취업박람회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정보는 실무자를 통한 것이라 인터넷 정보보다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자료가 많습니다.



• 국내 최대 여행기업의 LA지사 인바운드 팀 인턴 채용



##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실한 기업·기술인 육성을 꿈꾸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동원파츠 조덕형 대표



배움은 기본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일이라는 (주)동원파츠 조덕형 대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그랬듯 기술인 후배들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했으면 한다는 조덕형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반도체 설비 부품 국산화로

#### 안정적인 성장

(주)동원파츠 조덕형 대표는 기술 분야에 몸담은 지 올해로 43년이 흘렀습니다.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결길로 새지 않고 꾸준히 걸어온 기술인으로서의 길은 어느덧 가능한 국인이라는 결실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제149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조덕형 대표는 반도체 장비 부품과 LCD, LED, Solar sell 장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동원파츠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비 부품의 경우 (주)동원파츠가 이 사업에 뛰어들기 전 거의 대부분 해외 글로벌 장비회사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램리서치와의 공동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해 지금의 성장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소량으로 납품하던 반도체 부품 샤워헤드(Showerhead)에

램리서치가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왔어요. 이에 개발에 성공하여 2017년 한 해 수출액만 16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하게 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이 우수해 사용 수명이 길다보니 우리 고객사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전해지곤 합니다.”



## 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즐기며 도전과 성취

(주)동원파츠가 이 같은 기술력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실패와 도전이 반복됐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지인들과 시작한 사업은 창업과 동시에 IMF를 겪으며 폐업 위기를 맞았지만 남들이 꺼리는 각종 까다로운 공정의 작업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부른 초인적 힘이었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제 삶은 끊임 없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제가 단 한 번이라도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저는 실패와 성공의 의미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 성공을 만들고 성공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만드니까요.”

다른 기술인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났다거나 천부적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었지만 그는 기술을 통한 모험과 가능성을 즐길 줄 알았기에 도전과 성취를 반복해가며 이 일을 계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 편안함에 길들여져 천적이 와도 날지 못하던 오리

5년 전 결혼 30주년을 계기로 조덕형 대표는 일년에 한 번씩은 꼭 부부동반 트레킹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데 이번 여행지였던 스코틀랜드는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자연은 귀한 삶의 이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야생오리 떼가 매일 아침과 저녁 거의 정해진 시간에 약속이나 한 듯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곳 주인이 매일 자신이 출퇴근하기 전후 모이를 준다고 해요. 그 시간에 맞춰 오리들도 출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리들은 하나같이 날지도 못하고 뚱뚱했습니다. 야생성을 잃은 거죠.”

천적이 와도 날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조덕형 대표는 편안한 것에 길들여지고 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동원파츠를 이끌어가는 그의 경영철학에도 일찌감치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최고의 활황이어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꺼리고 어려운 일, 단품종 소량생산에 주목했어요. 매출이 생기면 계속해서 시설에 투자했고 모든 공정이 가능한 일괄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쉽게 타격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 결핍이 단단한 뿌리를 만드는 나무처럼

조덕형 대표는 이번 여행지 스코틀랜드에서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것이 이상해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연중 180일 정도 비가 오는 스코틀랜드의 나무들은 물을 찾아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가 자라면 잘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조덕형 대표에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풍족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역경과 결핍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죠. 결핍은 자신을 더 단단히 하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주)동원파츠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다부지게 성장한 회사로 말이죠.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11년 전부터 지속해온 직원교육 스터디 프로그램도 생각의 틀을 깨고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죠.”

정형화된 틀을 만들지 않고 늘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덕형 대표는 이미 만들어진 큰 길보다는 구불구불 새 길을 내며 가는 게 더 즐겁고 편안히 쉬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 연구로 결과를 기다릴 때 더 가슴 뛴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하며 설레고 싶다고 말하는 조덕형 대표, 기술이 자신의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다며 웃는 모습에서 이제 막 기술에 입문해 의욕 넘치는 청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일자리사업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01**

## 고용상황 불확실성 대비 일자리사업 강화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전년 대비 4조 5,000억 원이 늘어난 25조 8,000억 원(24개 부처)입니다.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데요, 민간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펼쳐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서비스는 더욱 확대됩니다.

**02**

## 제도개선으로 효율화·효과성 증대

성과가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합니다. 또한 성과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저성과 사업의 예산은 감액됩니다. 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에게는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합니다.

**03**

##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직접일자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하도록 합니다.

어두운 고용 사각지대를 밝히고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기업과 취업자에게는 고용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으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복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줄 ‘2020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봅니다.

정리 편집부



## 저소득층 생활안정 이렇게 지원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층이 늘어나는 한편, 최근 영세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EITC)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지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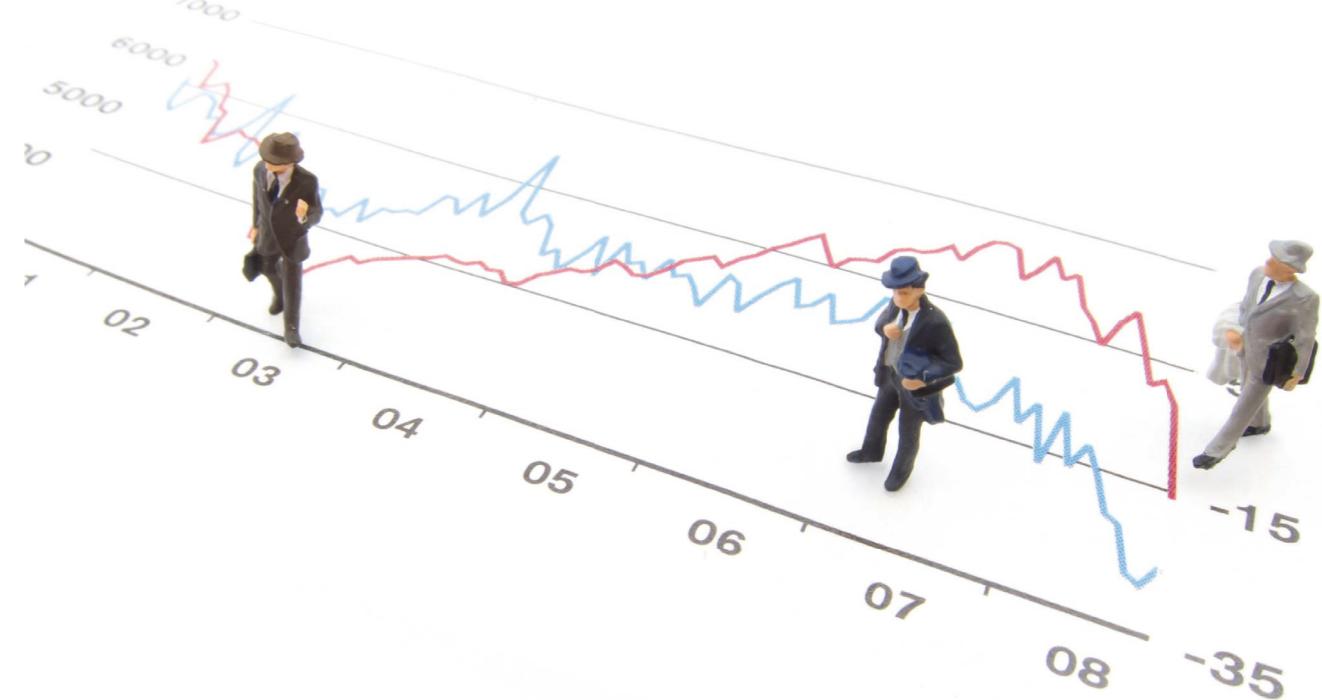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을 합니다. 소득요건은 종전보다 1.5배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재산(1억 4,000만 원→2억 원 미만), 연령(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포함)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대지급액 인상(85~250만 원→150~300만 원)과 구간 확대(600~1,300만 원→400~1,700만 원)로 상당 부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을 계속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2조 1,6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의 상한을 확대(월 210만 원→215만 원)합니다.

###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요

사회보험료 지원도 지속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소득보완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기준의 보수상한을 확대(월 210만 원→215만 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도 지속됩니다.



### '실업=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취업역량을 강화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소득을 지원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절차는 간소화합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청장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한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로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고 국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지원합니다

소득 근로빈곤층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15~39세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추가 지원(최대 3년)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자산형성을 돋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과 생산직 애근수당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한 예산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2% 인상하고,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임대료와 자가수급여를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돋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의 여가 지원도 확대됩니다. 노인, 노숙인 등 대상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를 새로이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내년도 고용시장 ‘활짝 캠’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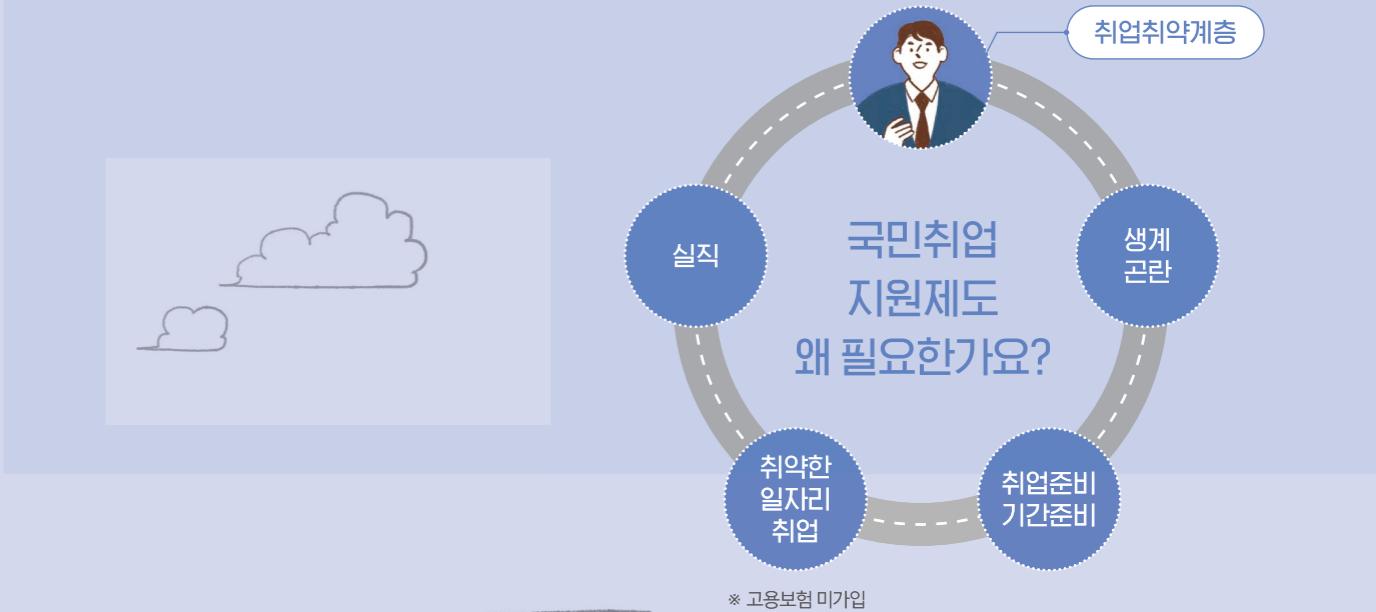
지난 6월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연내 입법이 추진되면 내년 7월부터는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왜 생겨났으며 어떤 정책들로 우리사회 고용시장을 환하게 밝힐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찾아  
고용서비스 강화

1995년 도입돼 ‘실업’이라는 절망의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고용보험제도는 그동안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 약 4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고용보험을 지원받고,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면서,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투트랙 지원  
일자리서비스와  
소득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만 18~64세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이들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려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에게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지원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이 투트랙 지원이 결합되어 보다 더 효과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는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50% 이하'로 시행 예정), 18~34세의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국민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결과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은 어렵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역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비된  
고용보험으로  
시너지 얻는  
취업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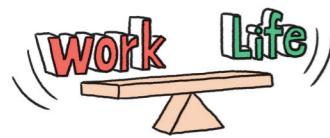
취업지원제도가 당초 예정대로라면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 접일자리를 통해 35만 명 이상을 지원하여 연간 235만 명 이상이 중증적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 증가하고, 빈곤갭은 23.2%에서 20.8%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노동연구원, '18년).

재정비된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우리사회 고용사각지대가 없는 '고용시장 맑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등  
연간 235만 명  
이상 지원 기대





## 우리 회사 막내는 도서관장님

그림 정민영



#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에 손 맞잡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협약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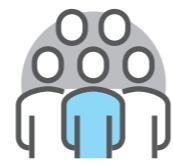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월 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사내 하도급 직원 직접 고용한 인터파크 현장 방문



이재갑 장관,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현장 방문해  
성공사례 확인, 정부 지원 강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7일 사내 하도급 직원 121명을 직접 고용하여 경영 성과가 향상된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대표이사 장민규, 파주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이 날 방문은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 달리 역으로 하도급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성과를 거둔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 121명의 사내 하도급 직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여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전체 근로자 중 46%에 달하던 사내 하도급 직원이 전원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이 됐습니다.

사내 하도급 직원이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이 됨에 따라 처우도 개선되었습니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경조금과 경조휴가가 주어지고,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계속근무 포상 등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성 증가 등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직접 고용 6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직접 고용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 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배송 실수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 제기율이 7% 감소함과 동시에 직원의 퇴사율도 7% 감소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의 소속감이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어 생산성도 늘어나는 등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하도급 활용이 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생생한 경험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 9월부터 추진



▶ 2019. 9. 5.  
▶ 문의 : 일학습병행정책과  
이현주 사무관(044-202-7265)

고용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합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 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산업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나 50인 미만 기업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며 학습근로자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02-6050-3929, 3933)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orchaamhrd.net>)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임서정 차관, 거제 조선업 일자리네트워크 현장 간담회 참석



▶ 2019. 9. 6.  
▶ 문의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사무관(044-202-7419)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6일 거제 조선업 일자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 기관 및 지역의 조선업계가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역 산업별 68개 일자리 네트워크 중 하나로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을 격려하고 조선업의 인력 수급 및 고용 전망과 네트워크 참여 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제 조선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최근 조선업의 업황 회복에 따라 거제 지역에 약 2,000명 이상의 조선업 인력 수요가 예상되면서 기능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거제고용복지+센터, 조선업 희망센터,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가 협력해 「거제 웰컴 센터」를 구성하고, 타 지역 구직자 377명에게 지역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고용복지+센터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가 계속되자 기업에 먼저 채용 대행 등을 제안하고 지역 내 22개 일자리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이끌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희망의 일자리 183개를 만드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기업 69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306개로 늘어



▶ 2019. 9. 6.  
▶ 문의 : 사회적기업과  
최학규 사무관(044-202-7422)

고용노동부는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69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습니다.

2019년에 총 239개소(1차 51개소, 2차 65개소, 3차 54개소, 4차 6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됐으며 이는 지난해(192개소 인증)에 비해 1.25배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총 2,30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4만 7,790명(취약 계층 2만 8,764명)의 노동자가 일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증 받은 기업 중에는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의 정원사업 활성화 지원, 도서 지역의 저소득자와 농촌 지역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75만 7,000명, 서비스업, 여성, 50세 이상 증가세 지속



▶ 2019. 9. 10.  
▶ 문의 :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사무관(044-202-7254)

2019년 8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75만 7,000명으로 집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여성 및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54만 5,000명이 증가해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금융보험’과 청년층 선호업종 ‘전문과학기술’도 증가해 5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1,000명(1.6%)이 축소되었으며 신규신청자 증가폭 둔화는 그동안 신청자의 규모가 커던 ‘제조업’, ‘건설업’의 증가 둔화와 ‘공공행정’, ‘보건복지’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1=1 함께 채우며 더 큰 하나를 만들다



## 장애인과 고령자 2인1조 협업으로 원원 이룬

더사랑

친환경문구류와 구급키트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더사랑은 지적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후 9년여 동안 장애인과 고령자 고용의 안정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함께’를 통해 더 완전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더사랑의 의미 있는 협업을 소개합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환상의 복식조가 만드는 더사랑의 제품

중앙에 커다란 작업판이 놓인 더사랑 작업실에 여남은 명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은 구급키트로, 다양한 응급처치용품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 더사랑의 대표 상품입니다. 더사랑에서는 구급키트 뿐만 아니라 재생 종이 연필 세트로 이뤄진 친환경 문구 세트 등 생활 속 필요한 제품들에 아이디어를 담아 구성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목되는 점은 지적장애를 가진 젊은이와 은퇴 어르신이 한 조가 되어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사랑의 이영구 대표는 직원 중 취약 계층 비율이 약 80% 정도라고 소개합니다.

“저희 더사랑에는 총 1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직원 10명, 이들을 돌보며 함께 일하는 고령자 선생님 4명,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 4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분도 있어요. 오랜 시간 함께 손발 맞춰온 직원들이죠.”

### 평생 직업 없이 살아가는 재가장애인 가정의 고통

더사랑은 한 지역의 장애인 10명을 고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적장애인 중 특히 자폐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더사랑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폐증을 가진 젊은이들은 타인과의 교류가 어렵고 유대감 형성이 쉽지 않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취약한 편입니다.



“부모는 장애자녀를 낳았을 때 1차적 충격을 받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자녀가 성장하여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 평생을 재가장애인으로 살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 부모가 겪는 2차적 충격입니다. 재가장애인 부모들의 소원은 장애자녀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라고 해요. 이 가정들의 고통을 보며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돌봄이 어르신과 함께 작업하는 장애인 청년들

무엇보다 더사랑의 장애인과 은퇴어르신 2인1조의 고용 모델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영구 대표는 일본에 방문했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중증지적장애인도 돌봄이 역할을 하는 고령자와 함께 일



하면 단순한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장애인과 고령자 2인1조 고용모델’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어요. 10명의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2~6~2 비율로 구성했는데 장애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약한 고령자는 신체 건강한 장애 젊은이들이 도와주고, 섬세한 부분에서는 고령자가 지도하며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더사랑은 이런 고용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적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궁극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더사랑’  
이영구 대표



### 명함 하나의 행복, 보통의 삶이 갖는 가치

보통의 경우 회사에 입사하면 새 명함을 받게 되는데 명함은 어엿한 직업이 있는 사회인으로서 나를 보여주기에 명함 그 자체로 함축된 의미를 지닙니다. 때문에 더사랑에서는 직원 모두에게 명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명함을 갖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명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일 거예요. 더사랑의 당당한 직원으로서 10명의 장애인 직원, 4명의 고령자 직원에게 명함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명함을 전해 받은 직원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명함이었기에 그려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정에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명함은 장애인 가정의 주위 친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명함을 만들어주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지요.”

더사랑의 이영구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설립돼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려면 누구나 쉽게 창업 가능한 모델기업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더사랑이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힘껏 응원합니다.

### Mini Interview



더사랑에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요

- 29세, 청년 리더  
김종혁 사원



천사 같은  
순수함을 배워요

- 76세, 상담역  
임지순 총괄

첫 직장인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제게도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도우며 함께 일할 수 있으니 즐겁습니다.

청년 직원의 천사 같은 순수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 평가체계 만들며 새로운 소통이 시작된다

## 건영테크(주)

올해로 설립 27주년을 맞은 건영테크(주)는 창원산단 내에서도 손꼽히는 건설기계 분야 품질 우수기업입니다. 2018 청년 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각종 인증과 청년의 사회 진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으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건영테크(주)가 다시 한 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정리 한경희 사진 스튜디오



### 회사와 근로자 성장의 선순환 연결고리 만들기

한국 기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위치한 건영테크(주)는 1992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로 2016년 150억 원, 2017년 200억 원, 2018년 230억 원의 매출신장을 달성하며 건설기계 분야의 대표적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영테크(주)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국내외 건설기계 및 농기계, 산업차량과 버스, 상용차용 잠금장치와 연료캡/Urea 캡, 연료주입구 등으로 국내 대표적 건설장비 3사를 비롯해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회사가 규모를 갖춰 성장해가고 있는 만큼 건영테크(주) 인사총무팀 고창봉 차장은 보다 체계적인 임금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노동법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는 임

금관리를 위해 임금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과 향상을 통한 직원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이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고민했습니다.

“회사가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단 내 중소기업들의 일터혁신 컨설팅 진행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한 결과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아래 저희 회사도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체계적 평가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작은 중소업체 규모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상 건설기계 분야에서 체계적인 임금제도와 평가체계를 갖춘 기업이 드물기에 건영테크(주)의 이 같은 시도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임금제도와 평가체계 도입에 대한 내부 의지에 따라 우선 건영테크(주)의 현황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기본 토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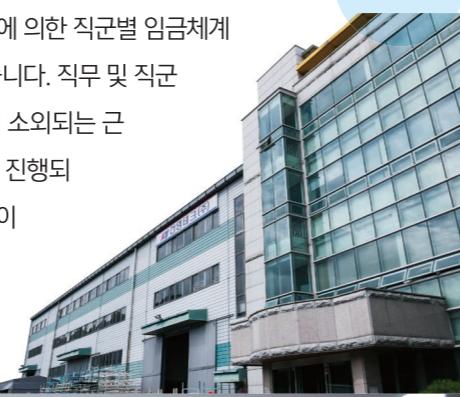
“개선 진행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근로자의 개별 의견을 수렴하고 팀장 회의를 거쳐 평가 및 임금체계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기 전에는 업무 특성상, 혹은 개인적 성향상 두드러지지 않는 직원들에게 대해 개별 능력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정기인사 때마다 회사의 고민도 컸고, 직원 개개인의 불만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임금협상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보니 승진, 승호에 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은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 새 평가체계와 함께 구축된 신뢰와 소통 구조

평가항목의 기초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각 팀의 리더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평가와 팀장평가, 임원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군 및 직무 분석을 통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직군별 임금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무 및 직군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통해 소외되는 근로자 없이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되니 그동안 적정한 기준 없이 이뤄진 경영진의 인사 평가와 임금인상에



일부 의구심을 가졌던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이에 대해 임금인상과 인사발령 등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업무 태도와 성과가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점입니다.”

이번 평가체계 구축의 가장 큰 성과는 다른 아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소통, 즉 ‘서로에 대한 재발견’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와 직원, 상사와 부하, 동료와 동료가 서로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어떤 점을 잘하는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임금체계 개선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통한 발전,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의 구조로서 그 바탕이 갖춰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개선된 임금체계 시행이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근로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며 평가항목도 더욱 핵심적 내용으로 보완·개선하여 더욱 탄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 Mini Interview

신수현 대리  
생산팀



입사 2년차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번 평가체계 구축으로 입사 전 경력이 인정되면서 저 외에도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기가 진작되고 업무에 대한 의지도 새로워졌어요.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며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직원이 즐거운  
회사를 꿈꾸는

—  
(주)에듀윌

# 앞서가는 직원 복지로 워라밸기업의

공무원·전문자격증 교육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직원이 행복한 기업으로 또 다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구직자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에듀윌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직원이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에듀윌을 만나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업무 효율화로 이뤄가는 회사와 개인의 발전

1992년 설립돼 27년의 역사를 가진 (주)에듀윌은 자격증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만큼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 받는 등 공무원·전문자격증 관련 우수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합교육기업으로서의 이런 성과는 직원들의 행복에 큰 관심을 가진 기업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4일 근무제는 업계 최초 시도라는 자부심으로 (주)에듀윌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워라밸 제도로 3개월여 기간 동안 직원들의 업무 방식과 환경은 점점 더 효율화되고 있다고 경영지원 본부 인사팀 박성호 매니저는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중 4일을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4일 근무제가 업계에 선례가 없다 보니 제도화를 위

한 기준 마련부터 효율적인 근무 환경과 인테리어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더 촘촘히 업무에 집중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선생님이 되다





### 전문 마사지사 상주 안마시설 등 남다른 사내 시설

(주)에듀윌은 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 워라밸의 꿈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서 2018년부터 워라밸 기업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에듀윌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마련한,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간이 있는데요, 안마의자 39대를 비치하고 국가공인 안마사가 상주하는 호텔급 안마시설 ‘힐링큐브’가 바로 그곳입니다.

“헬스키퍼라고 부르는 장애인 마사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를 풀고 아픈 부위를 관리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꿈같은 업무 공간을 구성하여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확실히 쉬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부터 갖가지 생과일주스, 다양한 음료를 갖춘 카페테리아 ‘에듀윌역’도 직원들이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사내 시설 외에도 오후 4시부터 30분간의 집중휴식시간, 장기근속휴가제도, 전 직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우수직원 해외 포상휴가 및 해외 가족전체 여행 지원, 직원 금연클리닉 운영, 명사초청강의 ‘두드림교육’, 사내 북카페 ‘북힐스’, 에듀윌 온라인강의 50% 할인, 오후 4시 퇴근과 선물을 지급하는 생일&결혼기념일 ‘축하한day’, 연차사용캠페인 ‘영차영차 일하고, 연차연차 쉬어요!’ 등을 운영하며 ‘꿈의 직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수시 운영평가로 만족도 높은 워라밸

(주)에듀윌은 워라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 직원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도 시행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만족하는지, 잘 이용하는지도 꾸준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부서의 50%가 시범운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1개월 뒤 시행 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워라밸 제도로 나타났습니다.



“5점 만점 기준으로 근무 만족도는 4.6점, 개인업무성과평가는 4.4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4일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개인 삶의 질 향상,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에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주4일 근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전사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직원 만족 워라밸 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주)에듀윌의 이 같은 활동이 결국 회사와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내 대표 교육기업으로서 저력을 발휘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 Mini Interview

행복한 기업을  
지키는 수  
있어요.



김재명  
전략마케팅팀 매니저

주4일 근무제가 워낙 매력적이었던 터라 지난 6월 (주)에듀윌로 이직하였습니다. 18개월 딸을 두고 있고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이라 일주일 중 제가 쉬는 하루에 맞춰 병원 진료를 함께 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진정한 워라밸 회사입니다.

추가로 주어진 휴식을  
질 힐용해보고  
싶습니다.



이호성  
총무팀 매니저

2년차인데 회사의 많은 워라밸 시설들 중에서도 힐링큐브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사내 안마시설이 호텔급이거든요. 주4일 근무로 하루 더 쉬는 날에는 체력단련도 할겸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 상호 존중으로 서로의 가치를 높이다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 신생 합작법인으로서 화합을 위한 노력 집중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이하 HDC신라면세점)은 HDC와 신라면세점이 합작해 설립하였으며 2015년 12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개점하면서 본격적으로 면세장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업력으로 치면 이제 4년을 조금 넘긴 신생기업이지만 설립 3년 만에 시내면세점 가운데는 다섯 번째로 매출 1조원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인사총무팀의 한태석 차장은 HDC신라면세점의 이러한 저력을 회사와 직원이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여 열린 조직으로서 유연하게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또 소통한 결과, 경영진과 직원, 직원과 직원간 거리감이 줄어들고 소속감과 일체감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신생 합작법인이다 보니 설립 초기에는 각 개인 또는 각 조직의 관계가 느슨하거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

만 교육, 워크샵, 제도 정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성원간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하며,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설립 5년차를 맞은 지금 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고 하나 되며 성공적으로 면세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설립 5년차를 맞은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당당히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치열해진 면세점시장 상황 속에서도 후발 면세점 중 최단기 흑자전환을 이루며 고속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비결을 노사 화합에서 찾고 있는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의 행복한 노사 동행길을 따라가 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선 화합을 위한 소통

건설회사와 유통회사는 사업 특성이 워낙 달라 그 구성원들의 성향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면세점 초기 기준 면세업 출신의 경력사원들을 비롯해, 공채 입사자 등 각양각색의 업종과 경력 사원들이 대거 채용되면서 HDC신라면세점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직원들을 하나의 조직원으로 융화시키고 서로 믿고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각기 다른 개개인의 집합이 HDC신라인이라는 구성원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여왔죠.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실천을 시작으로 각 부서의 장 역시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DC신라면세점은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 위한 비전과 가치를 강조하며,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HDC신라면세점의 두 명의 공동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입문 교육 시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에 두 대표는 직접 강의에 나서고 매월 공개 경영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요 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합니다. 공식적 CEO 간담회 외에도 수시로 팀별 식사자리를 통해 회사의 이슈 설명과 더불어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타 팀, 타 부서간 이해 위해 함께 어울리는 활동 장려

HDC신라면세점은 각 팀간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로스오버씽킹(Cross-over Thinking)이라는 활동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타 본부 또는 타 팀 구성원과의 혼합 조로 구성하여 서로 소통·공감·협력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체육 또는 문화 활동 등을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라포(공감대, 친밀감)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활동 후 ‘다른 팀 업무,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좋았다’는 직원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열린협의회’라는 명칭의 노사협의회도 형식보다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칭대로 경영진과 근로자 위원이 오픈 마인드로 협의에 임하며 협의회 개최 시 상호 존중 및 ‘위원님’ 호칭을 통하여 근로자위원을 존중하고 협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HDC신라면세점이 워라밸 등 직원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춰진 이유도 이 열린협의회를 통한 협의의 결과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직원들의 의견, 요구사항 등을 수시로 취합하여 검토한 뒤 매 분기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경영진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열린협의회 안건의 실제 이행 수준은 60% 이상으로 높은 편이죠.”

직원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 존중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간다는 HDC신라면세점의 사례는 우수한 노사문화의 비결이 업력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노사 서로 간 이해와 노력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 Mini Interview



박세준 대리  
인사/총무팀

이번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니고 싶은 회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담당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다정 주임  
재경팀

저같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들에 대해 회사의 배려가 많아요. 입사 후 지금까지 자금 현황과 집행을 담당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자금 조달운용 업무도 해보고 재무회계로도 업무 외연을 넓히고 싶어요. 우리 면세점에서 재경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방방곡곡  
인재를 찾습니다!**

# 취업·일자리 박람회



**열매가 알알이 여물어가는 계절,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소식도 가득합니다. 취업 준비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가을이 선사하는 낙낙함에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방방곡곡 취업·일자리박람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편집부

열매가 알알이 여물어가는 계절,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소식도 가득합니다. 취업 준비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가을이 선사하는 낙낙함에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방방곡곡 취업·일자리박람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충청남도장애인채용박람회



충남도내 장애인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장애인 고용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장애인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채용관에서는 1:1 현장면접이 진행되며, 지원관에서는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사진 촬영, 이미지 미팅, 이력서 대필, 수화통역 지원, 장애학생 모의면접 및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됩니다.

일시 2019년 10월 8일(화) 14:00~16:00

장소 아산 이순신체육관 주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1  
04

## 2019 강동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정보와 다양한 소통, 강연이 있는 '2019 강동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00개의 구인기업과 약 1,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69개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행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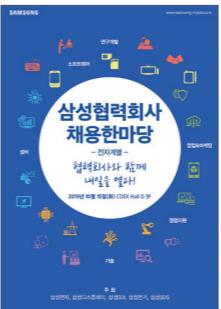
간 동안 취업 관련 특강과 노동상담, 소통카페가 운영되며 함께 마련된 취·창업존을 통해 보다 알찬 취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 2019년 10월 23일(수) 13:00~17:00

장소 강동구청 앞마당 주최 강동구

02  
05

## 삼성협력회사채용한마당



역량있는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최적의 일자리를,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에게는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삼성협력회사채용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취업토탈솔루

션관, AI자기소개서 컨설팅, VR면접체험, 면접 메이크업 등의 부대행사가 열리며 취업특강관에서는 맞춤형 직무 특강이 운영됩니다.

일시 2019년 10월 15일(화) 10:00~17:00

장소 코엑스홀 D 3F 주최 삼성전자 및 계열사

여주시는 관내 구인업체에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의 기회 및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0여 개의 우수기업과의 1:1 현장면접 채용관이 운영되며, 취업

## 2019 여주시 취업박람회



타로카드,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무료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현장매칭 상담 등 부대행사가 열립니다.

일시 2019년 10월 16일(수) 14:00~16:00

장소 여주대 용마체육관 주최 여주시

03  
06

##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벤처기업과 특성화고생(기능인재)간 채용의 장이 마련됩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인정하는 우수벤처기업 50개사가 참여하는 '2019 우수벤처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는 현장 면접관이 운영돼 기술과

기능을 갖춘 특성화고 인재들에게 특화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 클리닉과 VR면접 체험관 등 취업 준비를 돋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10:00~16:30

장소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관광유관협회, 우수기업들이 힘을 합쳐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20개 관광사업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기

업 실무자와의 1:1 멘토링과 관광산업분야 해외취업을 지원하며, 관광관련분야 일자리 정보와 관광분야 취업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30일(수)

장소 코엑스 홀 C1, 2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춤정보 제공

## 주택관리 분야 新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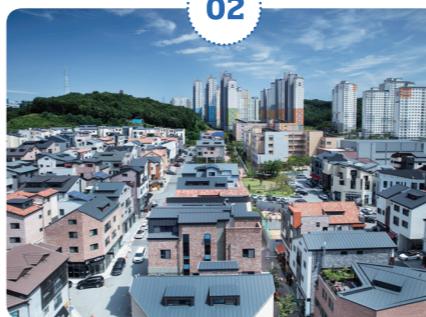
주거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함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요변화와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주택 관련 직종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관리 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부(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 교육부 <미래직업 가이드북>)



###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담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살기 편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존의 건축, 개호복지, 의료의 관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거주자의 눈높이에서 파악, 주거환경을 원활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합니다.



02

### 빈집 코디네이터

빈집을 찾아내어 소유주와 협의 하에 활용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빈집을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큰 집을 공유 주택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수요의 변화와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이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03

### 매매주택연출가

집이 빨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구를 재배치하고, 벽을 페인팅하거나 정리하여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며 집을 팔려는 사람을 위해 주택 구입 희망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집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외관에 대해 컨설팅하고 관련 연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집의 가치를 높이고 주택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04

### 주택진단사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주로 주택)에 구조나 지붕, 벽, 냉난방 및 배수시설 등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거래 과정에서 분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에 직접 방문해 일반 구매자가 확인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검사하여 이 과정에서 수리를 요하는 곳이나 올 경우, 거래 내용을 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제안합니다

**정명원** 주거복지상담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과장, 서울시서초주거복지센터 실장)



### 고시원 생활자에 안정된 집 마련해 큰 보람

서울시 서초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원 님은 2010년 주거복지상담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상담과 주거복지 교육,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요. 주거취약계층이라 함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주거취약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주거안정 즉, 소득수준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으로 주거복지교육을 통해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주거로드맵을 함께 계획하고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상담을 합니다.

“한 사례로 고시원에 살고 계셨던 분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주거복지주민교육을 통해 자신의 주거계획을 설계하고, 전세임대를 신청해 선정되어 함께 이사 갈 집을 가봤을 때 느낀 보람은 말로 할 수 없었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 소명의식 가지고 감동을 전하는 주거복지사

정명원 님이 이 일을 시작한 2010년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건설’과 ‘공급’에서 ‘관리’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SH공사(지금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주거복지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신문에서 주거복지상담사 모집공고를 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신과 잘 맞겠다 싶어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입사 후 정명원 님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복지 민원상담과 주거취약계층(홀몸노인, 정신·알콜장애인, 청소년가장) 상담 및 서비스지원, 주거이동지원 상담, 일자리연계 상담,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 연계 등을 담당했고 이후 팀을 옮겨 주거복지업무, 교육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년 4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면서 지금의 서초주거복지센터로 옮겨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어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과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돋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동은 설득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현장에서 열심히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 주거복지상담사에 대해 ‘더’ 궁금해요…

#### Q.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서비스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되고 서비스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거서비스지원 전문인력 즉, 주거복지사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거복지업무 수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 Q. 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주거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으로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첫째,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둘째,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셋째,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로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Q. 주로 어디에서 일하게 되나요?

(사)한국주거학회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소지자는 1,927명으로 배출된 자격소지자는 2018년 기준 대부분(84%)이 취업상태입니다. 이들은 자체, 주요공기업, 공공기관 및 민간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사업소, 주택관리기업, 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주거정책 기획, 주거복지상담, 자원연계, 주거급여 지원 등의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 조 제1항).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동조 제5항),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동 법 제62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에는 분명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 이 연차휴가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 1항)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만 노동관계법상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한글날,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는 해당하나, 일반 기업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따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인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무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따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차별이 발생하므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55조 제2항). 다만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제4항).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을 받으라고 자주 광고전화가 옵니다. 쓸데없이 비용만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각종 교육들은 업종과 업태, 관련 행정청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주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①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간이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산업안전보건 교육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다만 업무형태나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별표1]).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별표8]).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고,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달콤한 추억의 직업 짤각짤각

## 엿장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던 엿장수는 구태여 내가 왔노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납작한 가위다리를 몇 번 부딪히면 어찌 알아듣고 동네 꼬마들이 엿장수 있는 곳으로 뛰쳐나왔지요. 달콤한 간식거리가 궁하던 시절, 유난히 반가웠던 엿장수의 가위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정리 편집부

짤각짤각 엿장수  
가위침질 엿장수  
“엿 사려” 소리 없고  
골목길만 짤각짤각

일 전 줄게 엿 주소  
걸레 줄게 엿 주소  
동생하구 노나 먹게  
쪼곰쪼곰 더 주소

엄마 아빠 일 간 뒤  
우리 둘이 집 본다  
집 보라고 일 전 준 걸  
짤각짤각 엿 삼네

—‘엿장수’〈동아일보〉,  
1936년 4월 2일



### 아이들의 첫 직업, 소년 엿장수

엿장수의 등장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엿’이 탄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엿장수는 꽤 유명한 직업에 속했나 봅니다. 장이 들어선 날의 모습을 그린 풍속도에는 엿장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의 엿장수는 시장 어귀 등 한 곳에 앉아서 장사하는 좌상(坐商)과 엿목판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파는 행상(行商)으로 나뉘었습니다. 행상에는 소년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일반 백성의 집에서는 아이라고 마냥 뛰어놀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둘거나 어머니를 따라 집안일을 했죠. 형편이 몹시 어려워 일찍이 자기 직업을 찾아야 했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중 사내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바로 엿장수였답니다.



### 엿 크기는 엿장수 마음대로

지금이야 엿도 사탕처럼 예쁜 모양으로 나옵니다만, 소년 엿장수들은 목판에 깔린 덩어리 엿을 예쁘게 모양 잡아 팔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그때 엿을 잡아 당겨 가위로 잘라 팔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 주었죠. 이 말이 대대손손 속담으로 전해진 것을 보면, 엿장수가 끊어주는 엿 크기가 아쉬웠던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 엿 바꿔 먹었던 그때 그 물건

시장에서 엿을 사려면 현금이 있어야 했지만, 농촌의 행상들은 곡식과 엿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리어카가 등장하면서는 곡식 대신 재활용 가능한 고물로 엿값을 치르기도 했지요. 용돈이랄 게 없었던 아이들은 빈 병이나 쇠붙이를 들고나와 엿과 바꾸었습니다.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집안의 낡은 물건을 엿과 바꿨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귀한 물건이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이야기도 동네마다 있는 에피소드죠. 바꿔먹은 엿은 이미 소화된 지 오래고 혼쭐이 난 것만 마냥 억울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엿장수를 다시 찾으면 동전 한닢과 물건을 다시 바꿔주었던 추억, 피리 부는 소년처럼 가위 소리로 동네 아이들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던 엿장수는 이제 없지만, 관광시장이나 민속촌에서 엿장수의 모습을 재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떠올려보세요. 집안 살림 돋겠다며 엿목판 들고 길에 나선 기특하고 찐한 소년 엿장수들을요.

**1481**년 이전

엿이 등장한  
고려시대쯤으로 추정

**1980**년대

시대 변화에 따라  
행상은 사라지고  
좌판은 근근이 이어짐



# 무르익은 가을을 만끽하는 6가지 방법

사계절이 뚜렷하나 각 계절의 기간은 공평하지 않은 우리 날씨 탓에 집에만 있으면 여름 다음 겨울입니다. 집 밖을 나서 보세요. 붉게 물든 가을은 자연에 발 디뎌야 비로소 보입니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단풍놀이 함께 떠나볼까요.

정리 편집부

## 축제

나눌수록  
커지는 즐거움



설악산단풍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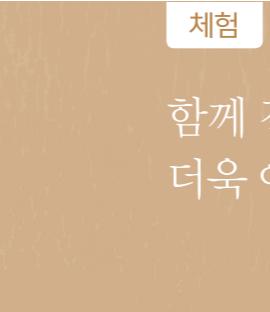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설악산단풍축제  
설악산 설악동 일대(예정)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산정호수(10/12~10/27, 주말마다)

10월의 설악산에는 저 높은 대청봉부터 내설악으로 단풍이 내려앉습니다. 고도가 낮은 외설악은 한 박자 늦게 물들어, 설악산은 10월 내내 단풍 릴레이가 펼쳐집니다. 불과 그리고 비교적 오래 머무는 단풍과 함께 매년 설악동에서는 설악산단풍축제가 열립니다. 공연과 노래자랑, 골목의 숨은 요리 고수들이 만든 먹거리 부스로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지요. 비슷한 시기 포천에서는 가을에 단풍만 있느냐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은빛 억새 들판에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가 열리죠.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스템프 투어, 인생 사진 콘테스트와 축하공연 그리고 플리마켓도 함께 즐겨보세요.



체험

함께 걸으면  
더욱 아름다운 가을



울릉도학교 제20강 가을트레킹



캠핑워드도그



울릉도의 다양한 모습을 전하는 울릉도학교에서 이번에는 가을 트레킹 코스를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섬이 단풍과 가을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하는 가을, 울릉도 전문가인 선생님이 육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절경으로 안내합니다. 사흘간 진행될 이번 트레킹은 울릉도학교 누리집(huschool.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가을을 우리집 친구, 반려견과 함께 즐기고 싶다면 캠핑워드도그에 참가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 행사는 반려견 관련 문화 행사 및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기워크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멋진 풍경 속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반려견과 행복한 추억도 쌓을 수 있으니 일석 삼조가 아닌가요?



음악

음악과 함께하는  
가을의 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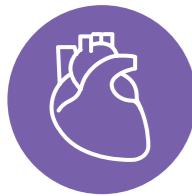
속리산단풍가요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단풍 놀이에 흥을 더하는 노래와 은근히 긴장감을 더하는 경연이 펼쳐지는 속리산단풍가요제는 매년 치열한 예선 심사와 경쟁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아마추어 가수들이 목소리를 뽐내는 무대로 경연과 더불어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 불꽃놀이도 진행됩니다. 흥겨운 가요제도 좋지만, 음악을 통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제격입니다. 수려한 자연 속에서 세계 각국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와 그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실력은 뛰지 않은 로컬 밴드까지 다양한 재즈 공연이 펼쳐져 오감을 감동으로 물들인답니다.



야근·스트레스 등이 유발하는 직업병

## 직업성 심장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을 제외하면 심장질환은 몇 가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직업적 환경에서 노출되기 쉬운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살펴봅니다.

글 조성식(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조교수)



###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들



심장질환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들에는 흡연,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운동부족, 비만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심장질환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직업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나치게 춤거나 더운 환경에서 일할 경우에도 심혈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 글리세린, 트리클로르에틸렌 등과 같은 물질 노출도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작업장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도 심장질환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연간 평균노동 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더 길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비율도 더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비록 유해도가 독성물질처럼 높지는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직업관련 유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대근무로 인한 심장질환은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하면서 우리 몸에 있

는 생체시계가 손상 받고 이로 인해 몸의 대사가 좋지 않게 바뀌어서 발생하는 심장질환입니다. 또 작업장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직무 긴장에 의한 스트레스,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불충분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직원들 간의 관계가 정의롭지 않아서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직업관련 심장질환의 예방



심장질환을 예방하려면 비직업적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이 있다면 잘 조절해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담배는 끊어야 하고, 적당한 양의 음주를 해야 하며,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관련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물리, 화학적 사회심리적인 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가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곳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심장독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할 수 경우 각별히 작업자가 이들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민주주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공정한 인사체계 수립과 같은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텅장’ 탈출을 위한 통장 관리 노하우

혹자가 ‘월급은 바람처럼 통장을 스쳐갈 뿐 남는 것이 없다’고 한탄할 때, 고수들은 말합니다. “애초에 월급 통장은 쌓는 통장이 아니야.”라고 말이죠. 스쳐가는 데도 급이 있다는 통장관리 고수들의 노하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 편집부



## 월급통장으로 수수료 아끼기

회사에서 월급을 입금해주는 은행을 지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직 한 직장에 별 생각 없이 예전에 쓴 통장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죠. 하지만 일반 입출금 통장에도 ‘급’이 있으며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월급통장만의 혜택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통장 개설 시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임을 밝히는 것은 기본, 여기에 직장인 우대 통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급여이체에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당행 이체 및 출금 수수료 면제는 기본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급여이체 통장으로 지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체크 카드 사용 시 타은행 ATM에서 출금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횟수 제한 여부는 상품에 따라 다름). 월급통장만 잘 따져서 개설해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수수료 부담 없이 가까운 은행에서 편하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쓰는 통장, 모으는 통장, 예비 통장 구분하기

재테크의 고수들은 소비는 꼼꼼하게, 저축은 무심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돈이 잘 안 모인다’고 하는 쪽은 그 반대죠. 쓸 때는 기분 따라 카드를 굽고, 적금 통장은 수시로 들여다보며 얼마 쌓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려보는 쪽이라면 소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구분하고 저축은 자동이체를 해 놓는 게 필수입니다.

우선 월급통장과 소비 통장을 구분하는 편이 가장 좋지만, 급여이체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계할 경우 혜택을 주는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월급통장을 소비통장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소비 한계 금액을 정해놓고 통장에 쓸 만큼만 남겨 두는 것. 나머지는 적금 등의 저축 통장과 비상금 통장으로 ‘월급 날 바로 다음 날’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비상금 통장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저축 통장을 허물어 쓰는 불상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적금통장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구분해 조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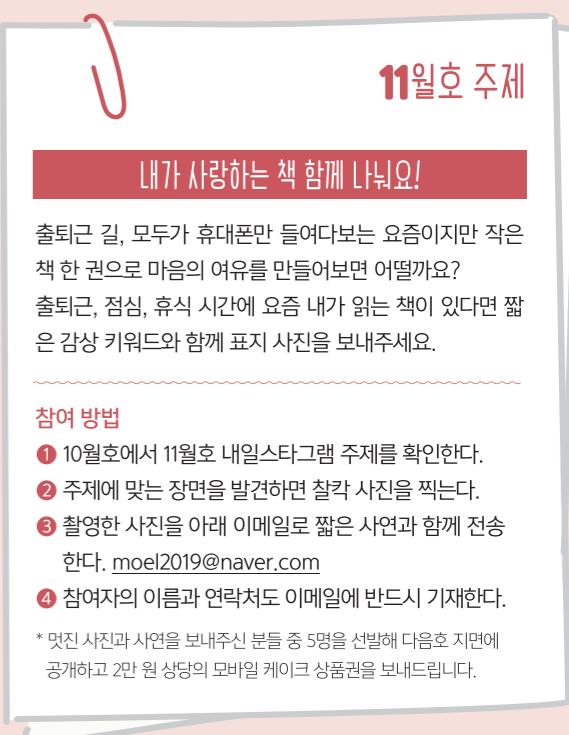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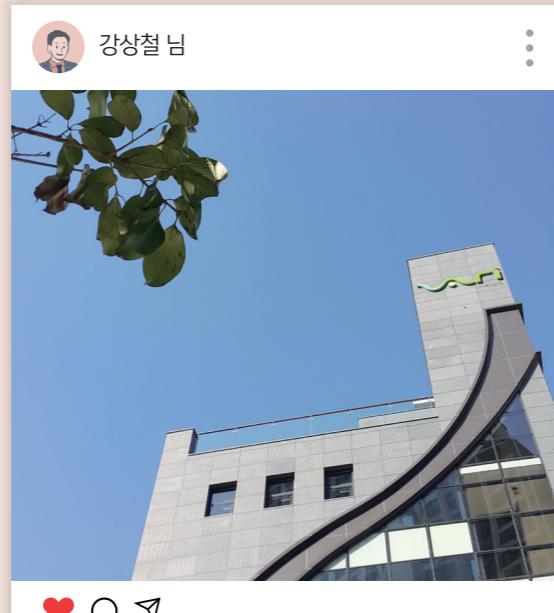
현실적으로 적금은 이자소득을 기대하기보다는 돈을 쓰지 않고 둑어, 모아두는데 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금을 한 계좌에 모아 둔다면 만기 전에 헤어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기까지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목돈이 필요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두려면 우선 돈을 모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적금 통장을 나누어 저축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용 계좌, 주택 자금용 계좌, 노후 자금용 계좌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계좌는 1년으로 가입 기한을 짧게 두고, 노후 자금용 계좌는 가입 기간을 가장 긴 것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사무실에도  
성큼 가을이  
왔어요

자연은 어김없이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이끕니다.  
더위에 잠 못 이루던 열대야가  
엊그제인데 선뜩한 새벽 기운에  
이부자리를 끌어당기니  
가을이 오긴 했나봅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살그머니  
가을이 왔지요.  
일터 속 가을 풍경을 나눠봅니다



11월호 주제

내가 사랑하는 책 함께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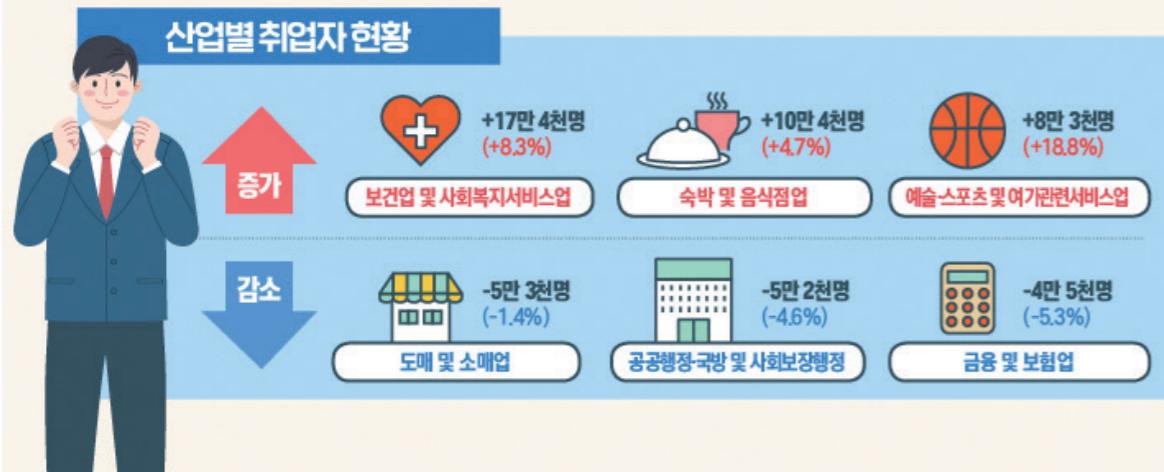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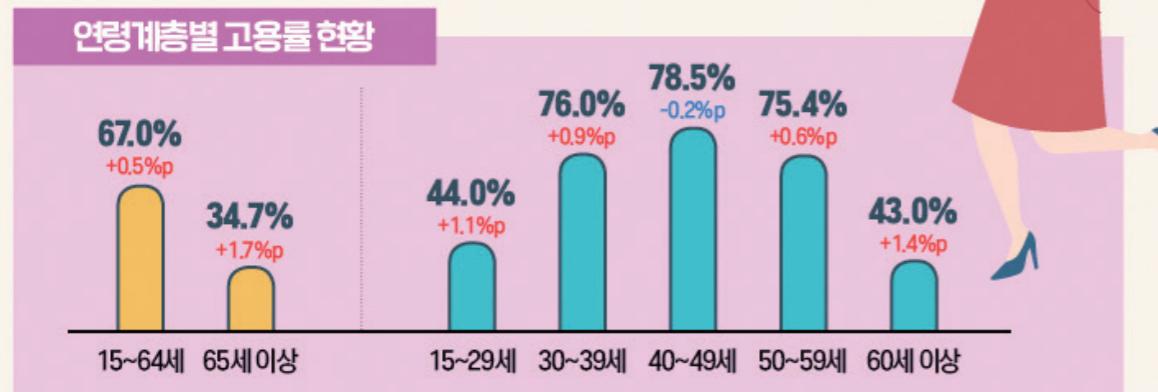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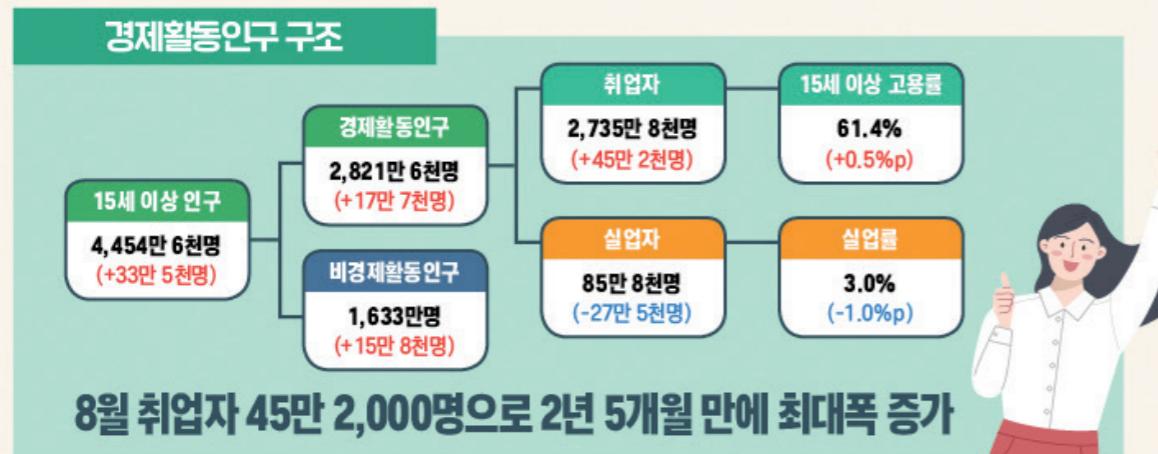
출퇴근 길, 모두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요즘이지만 작은 책 한 권으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출퇴근, 점심, 휴식 시간에 요즘 내가 읽는 책이 있다면 짧은 감상 키워드와 함께 표지 사진을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 ① 10월호에서 11월호 내일스타그램 주제를 확인한다.
  - ② 주제에 맞는 장면을 발견하면 찰칵 사진을 찍는다.
  - ③ 촬영한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짧은 사연과 함께 전송 한다. [moel2019@naver.com](mailto:moel2019@naver.com)
  - ④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이메일에 반드시 기재한다.

\* 멋진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을 선발해 다음호 지면에  
공개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은 줄어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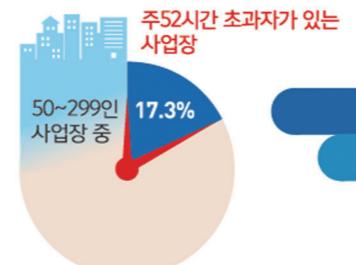


# 2020년, 주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에도 찾아옵니다

**기업실태조사** | 1,300개소 표본 실태조사 (6.18~7.1, 조사기준 4.29~5.26), 50~299인 기업 현장 간담회 및 집단심층면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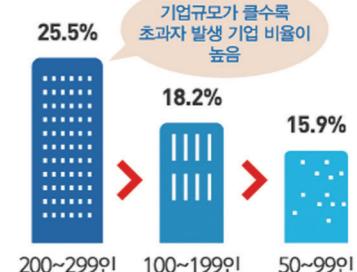


## 1. 주 52시간 초과 실태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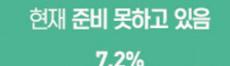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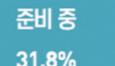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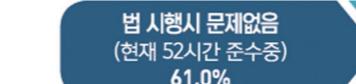
\* 1차 조사  
(18.5%, '18.12.31~'19.1.27. 4 주간) 대비 1.2%p 감소



규모별

\* 제조업 33.4%, 제조업 외 업종 9.7%

## 2. 주 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



\* 1차 조사: 법 시행시 문제없음(56.7%), 준비중(31.1%), 준비하지 못함(12.2%)

②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준비 중 77.8%, 준비 못하고 있음 22.2%로 응답

## 3. 제도개선 필요사항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③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준비기간 추가부여(20.6%)>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1.9%) 순

# Quiz

9월호 퀴즈 정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9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동기(서울시 송파구)

김영상(대전시 서구)

김유록(서울시 서초구)

김율곡(안산시 단원구)

김은미(대구시 수성구)

김태운(서울시 강서구)

김한별(경기도 안산시)

양혜진(부산시 사하구)

이시현(서울시 영등포구)

정경석(대전시 중구)

## 월간 <내일> 10월호 퀴즈

전국 32개소에서 퇴직을 했거나 퇴직 예정인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전직 상담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 일까요?

**힌트 1.** □□□□□□□□□□□□(한글로 열 글자)

**힌트 2.** 지금 바로 11페이지를 열어보세요.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월간 <내일>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알고 싶은 정책, 읽고 좋았던 기사, 또는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등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새로운 독자를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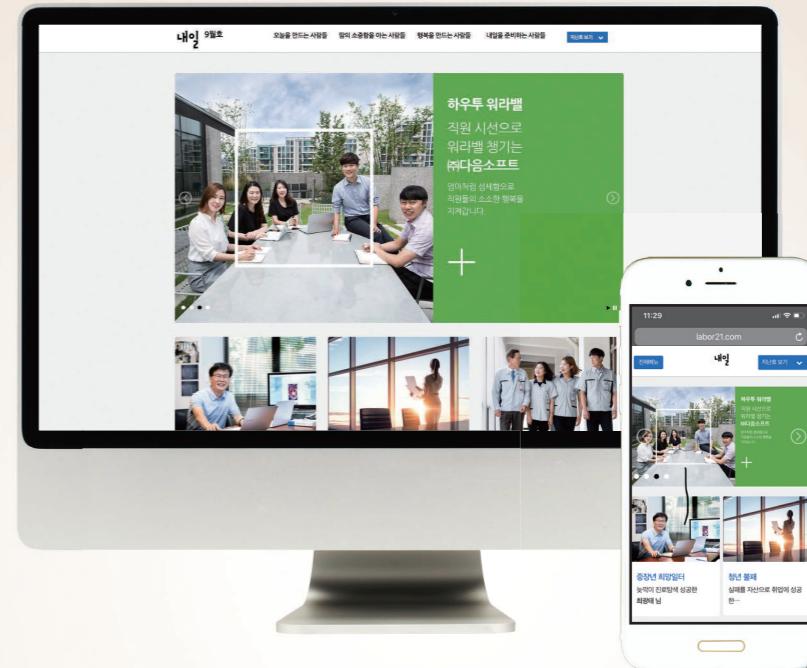
회사나 기관에서 월간 <내일>을 우연히 만나셨다면, 원하시는 주소로 매월 편하게 받아보세요. 아래 1번과 2번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은 다음 달부터 반영돼 매달 우편으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2. 웹진([www.labor21.com](http://www.labor21.com))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 주소를 적어 주실 때, 빌라 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모두 적어주세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labor21.com](http://www.labor21.com)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거나 'www.labor21.com'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해서 모바일 웹진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